

SH05 국어 모의평가 해설지

SH05 국어 모의평가 해설
빠른답지

[공통과목]

1 ③ 2 ⑤ 3 ④ 4 ④ 2 5 ① 6 ⑤ 7 ② 8 ④ 9 ① 10 ⑤ 11 ⑤
12 ④ 13 ④ 14 ⑤ 15 ⑤ 16 ② 17 ⑤ 18 ⑤ 19 ④ 20 ②
21 ⑤ 22 ② 23 ① 24 ② 25 ⑤ 26 ④ 27 ② 28 ⑤ 29 ③
30 ② 31 ③ 32 ④ 33 ② 34 ⑤

[화법과 작문]

35 ① 36 ② 37 ② 38 ① 39 ③ 40 ③ 41 ③ 42 ① 43 ⑤
44 ① 45 ⑤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④ 37 ⑤ 38 ③ 39 ③ 40 ④ 41 ⑤ 42 ② 43 ③
44 ① 45 ④

[공통과목: 독서]

[1~3] 상위 인지과 독서 전략

1. ③

[정답 해설]

③ 4문단을 보면 '이해의 착각'은 독자가 자신의 이해 실패를 감지하지조차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실패를 감지했으나 적절한 전략을 찾지 못한 상태라는 ③번의 설명은 지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에서 상위 인지는 이해 실패를 감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게 하는 역동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② 2문단에서 독서 경로의 설정은 독서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이후 이해 실패가 발생하면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④ 3문단에서 능숙한 독자는 인지적 부하를 고려하여 외부 자원 활용보다 텍스트 내부 정보의 재처리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⑤ 5문단에서 정보가 파편화된 텍스트를 읽을 때는 위계적으로 조직된 텍스트를 읽을 때보다 모니터링의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2. ⑤

[정답 해설]

⑤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적 부조화가 감지되었더라도, ㉡(전략 매칭) 과정에서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 비효율적인 경로 수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4문단에 명시된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2문단에 따르면 모니터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이해의 실패가 감지되면 독서 경로의 조정이 발생한다. ② ㉠을 통해 목표 상태와 현재 이해 상태의 격차가 없음이 확인되면 이해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므로, 보조적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독서를 지속한다. ③ ㉡은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 이후에 그에 부합하는 전략을 매칭하는 것이므로, 진단보다 선행될 수 없다. ④ ㉡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정확하게 작동하여 실패를 감지했다면, 이는 '이해의 착각' 상태가 아니다. 이해의 착각은 모니터링 기능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3. ④

[정답 해설]

④ <보기>의 (다)에서 학생이 글을 끝까지 읽은 것은 모니터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해의 실패를 감지하지 못한 상태다. 실패를 감지했음에도 조정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학생은 실패 원인을 진단하였으나, 능숙한 독자가 선호하는 회귀적 전략을 거치지 않고 보조적 전략을 곧바로 사

용했으므로 위계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았다. ② (나)에서 학생은 회귀적 전략을 먼저 사용한 후,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보조적 전략을 활용하여 경로를 조정했다. ③ (가)에서 학생이 외부 자원을 바로 활용한 것은 3문단에 언급되었듯 독서의 흐름을 끊고 인지적 부하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 ⑤ (다)의 사례는 텍스트가 논리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음에도 학생이 자신의 이해 수준을 오판한 경우이므로, 텍스트의 구조적 특성이 아닌 독자의 상위 인지 능력 부족으로 볼 수 있다.

[4~9] 역사적 설명의 논리적 구조 (랑케, 험펠, 드레이)

4. ②

[정답 해설]

② (가)는 역사학의 독자성을 옹호하는 특정 관점(랑케의 실증주의와 역사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고 있고, (나)는 역사적 설명의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서로 다른 두 관점(험펠과 드레이)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상반된 두 이론을 대조할 뿐 절충하고 있지 않다. ③ (가)는 실증주의 사학의 특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지 않았으며, (나)는 과학적 방법론 도입 시도의 실패 원인을 분석한 글이 아니다. ④ (나)는 역사적 사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반 법칙이 갖는 효용성을 일관되게 강조하지 않는다. 드레이는 일반 법칙 없는 설명을 주장했다. ⑤ (가)는 특정 학자의 역사관을 소개하지만 형이상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으며, (나)는 해당 역사관이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

5. ①

[정답 해설]

① (가)의 3문단에서 랑케에게 역사적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은 단순한 사실 수집을 넘어, 논리적 분석보다는 대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직관적 통찰'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② 역사적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편적 법칙으로 설명하려 한 것은 랑케가 아니라 험펠이다. ③ 험펠은 비어 있는 '초기 조건'이 아니라 비어 있는 '일반 법칙'의 자리를 채워 넣으면 과학적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드레이의 이론은 행위자가 비합리적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한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⑤ 드레이는 보편적 일반 법칙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법칙 없이 행위의 이유를 밝힘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6. ⑤

[정답 해설]

⑤ ㉠(연역-법칙적 설명)과 ㉡(귀납-통계적 설명)은 모두 포괄 법칙 모델이다. 과학적 법칙은 동일한 초기 조건과 일반 법칙이 주어지면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미래 예측에 사용될 수 없다는 공통점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은 보편적 일반 법칙을 전제하므로 예외를 허용하는 규칙으로는 온전한 설명항을 구성하기 어렵다. ② ㉠에서 초기 조건과 일반 법칙이 모두 참이라면, 논리적 필연성에 의해 피설명항인 사건의 발생은 확실하다. ③ ㉡은 법칙의 요건을 완화하여 통계적 법칙에 근거하므로, 설명항과 피설명항의 관계가 개연적 지지에 그치더라도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있다. ④ ㉠과 ㉡은 피설명항을 지지하는 논리적 강도에 차이가 있으나, 두 방식 모두 역사학이 과학적 설명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는 전제를 공유한다.

7. ②

[정답 해설]

② 랑케는 (가) 1문단에 명시되었듯 역사 서술에서 역사가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할 것을 주장했다. 사건이 지닌 고유한 의미를 주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고 조언하겠다는 반응은 랑케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랑케는 엄밀한 문헌 고증을 바탕으로 하되 사건 배후의 역사적 생명력을 포착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드레이는 혁명군의 처형 결정을 설명할 때 그 행위가 당시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수단이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드레이는 피설명항을 설명하기 위해 행위자가 가졌던 목표와 상황 판단의 계산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다. ⑤ 랑케는 개별 사건의 일회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중시했고, 드레이는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8. ④

[정답 해설]

④ <보기>에서 칼 포퍼는 상황 논리가 합리성의 근거를 개인의 인지 과정으로 환원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드레이의 실천적 추론은 행위자의 '주관적 관점'에 기반하므로, 포퍼는 이를 상황 논리로서 충분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포퍼는 상황과 선택의 재구성을 설명으로 보므로, 사료를 통해 과거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데 치중한 랑케의 태도를 타당한 설명이 아니라고 비판할 것이다. ② 포퍼는 합리성의 근거를 개인의 인지 과정으로 환원하지 않으므로, 역사적 진리에 도달하는 근거를 역사가의 직관에 두는 랑케의 태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③ 포퍼는 보편 법칙의 도입에 반대하므로, 험펠처럼 사건을 일반 법칙 아래 포섭하는 방식이 필수 조건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⑤ 포퍼 역시 행위자가 지녔던 목표를 바탕으로 선택을 설명하려 하므로, 드레이가 역사적 사건의 핵심을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로 파악한 것에 공감할 것이다.

9. ①

[정답 해설]

① 문맥상 ㉣ '거부하며'는 어떠한 시도나 법칙을 물리쳐 배척한다는 의미이므로 '배격(排擊)하며'와 바뀌 쓰기에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부인(否認)하며: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지 않다고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③ 사양(辭讓)하며: 겸손하여 받지 않거나 남에게 양보함을 의미한다. ④ 저항(抵抗)하며: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버티는 의미이다. ⑤ 외면(外面)하며: 마주치기를 꺼려 얼굴을 돌려 피함을 의미한다.

[10~13] 법학 - 소멸 시효와 압류/보전 처분

10. ⑤

[정답 해설]

⑤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조치 자체의 효력은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발생하지만, 소멸 시효 중단 효력만큼은 예외적으로 조치 '신청 시로 소급'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송달되어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2문단에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확정 판결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조치라고 설명되어 있다. ② 1문단에 시효 중단 사유 발생하면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은 무효가 되고 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이 시효가 시작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③ 4문단에 소급효는 예외적으로 조치 신청 시로 소급하여 인정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신청 시점이 만료 전이면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④ 4문단에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시, 그 사실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되어 있다.

11. ⑤

[정답 해설]

⑤ 2문단에 따르면 압류는 궁극적 만족을 얻기 위해 재산을 강제적으로 묶어두는 것이며 내부 절차(현금화 등)로 나아가는 단계다. 반면 보전 처분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단계에 그친다.

[오답 해설]

① 압류는 확정 판결 등에 기해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가능하고, 보전 처분은 판결 전 권리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가능하다. ② 압류는 확정된 채권 회수를 위함이고, 보전 처분은 재산 은닉 우려 시 임시 동결을 위함이다. ③ 보전 처분 내부에서도 금전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금전 이외 채권을 위한 가치분으로 나뉜다. 보전 처분이 금전 이외의 채권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둘 다 권리 실행의 의

사표시이므로, 본안 소송 승소 전이더라도 법원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공통적으로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12. ④

[정답 해설]

④ 4문단에 목적물이 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면, 채권자가 묶어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취해진 조치 자체의 효력도 상실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보기>에서 권리 B의 시효 완성일이 5월 12일이므로 방어 조치가 없었다면 목적물 채권 B는 소멸한다. 조치 X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5월 15일에 통지가 도달하였더라도 권리 A의 소멸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집행권원에 의해 권리가 확정된 상태라면 '압류'에 해당하며, 별도의 담보 제공 절차가 수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 4문단에 시효 중단의 소급효는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질 경우에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5월 8일에는 아직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급효가 당장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새로운 시효가 시작되지 않고 기존 시효가 이어진다. ⑤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는 '가압류'다. 채무자가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법원에 맡기면 법원이 즉시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13. ④

[정답 해설]

④ 본문의 ㉠ '멈추게'는 사동 표현으로, 타동의 힘을 가해 진행되던 작용이나 현상을 그치게 한다는 의미다. "기계의 작동을 멈췄다" 역시 목적어를 취하여 대상의 작동을 그치게 한다는 점에서 본문과 동일한 문형과 의미로 쓰였다.

[오답 해설]

① 목적어를 취하지만, 물리적인 움직임이나 발걸음을 그친다는 의미이므로 시효 진행을 멈춘다는 문맥적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② 목적어 없이 주어 스스로 멈추는 자동사적 용법이다. ③ 목적어 없이 비가 스스로 멈추는 자동사적 용법이다. ⑤ 목적어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멈추는 자동사적 용법이다.

[14~17] 기술 - 초분광 이미징과 라인 스캔

14. ⑤

[정답 해설]

⑤ 지문 3문단의 첫 문장에 따르면 정확한 공간 정보의 재구성을 위해 요구되는 정합성은 분광 해상도와 신호 대 잡음비 간의 정합성이 아니라, '카메라의 이동 속도와 노출 시간, 그리고 지상 표본 거리 간의 정합성'이다. 개념을 잘못 연결한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에서 데이터 큐브는 2차원 공간 좌표와 파장 축으로 구성되어 형상 정보와 물질적 특성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② 2문단에서 라인 스캔 방식은 2차원 센서의 한 축에 1차원 공간 정보를, 다른 한 축에 파장 정보를 기록한다고 설명한다. ③ 1문단에서 슬릿의 너비를 넓히면 센서에 도달하는 광량이 증가하여 유효 신호의 세기가 커지므로 신호 대 잡음비 값이 개선된다고 설명한다. ④ 2문단에서 노출 시간을 늘리면 센서에 축적되는 전하량이 증가하여 신호 대 잡음비를 높일 수 있지만, 대역폭의 제약으로 프레임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15. ⑤

[정답 해설]

⑤ 신호 대 잡음비를 일정한 값으로 유지할 때 슬릿의 너비를 넓히면 단위 시간당 도달하는 광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필요한 총 전하량을 얻기 위한 '노출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정상적인 공간 비율을 유지하려면 '이동 속도 × 노출 시간 = 지상 표본 거리' 공식을 충족해야 하므로, 노출 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카메라의 이동 속도를 반대로 '더 빠르게'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더 느리게 설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오답 해설]

① 분광 해상도를 위해 슬릿을 좁히면 광량이 줄어든다. 공간 비율 유지를 위해 이동 속도를 늦추지 않고 노출 시간도 늘리지 못한다면 총 광량이 부족해져 신호 대 잡음비의 저하를 피할 수 없다. ② 언더 샘플링을 보정하기 위해 노출 시간을 줄인다면, 왜곡은 해결되더라도 총 광량 감소로 인해 신호 대 잡음비는 저

하된다. ③ 오버 샘플링을 보정하기 위해 노출 시간을 늘린다면, 모션 블러나 프레임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④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로 라인 스캔을 사용한다면 y좌표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1차원 공간(x)의 시간에 따른 스펙트럼 변화만을 기록하게 된다.

16. ②

[정답 해설]

② ㉠ '모션 블러'는 2문단에 명시되어 있듯이 노출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질 때, 그 시간 동안 대상이 움직여 센서의 동일한 픽셀에 서로 다른 지점의 정보가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려면 원인이 되는 노출 시간을 줄여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데이터 전송 속도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모션 블러가 아니라 프레임 누락이다. ③ 인접한 파장의 빛이 간섭을 일으켜 발생하는 문제는 분광 해상도와 관련된 것이며 모션 블러와 무관하다. ④ 카메라 이동 속도가 빨라 광량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는 신호 대 잡음비의 저하이며 모션 블러가 아니다. ⑤ 카메라가 이동한 거리가 짧아 동일 지점이 중복 촬영되는 현상은 오버 샘플링이다.

17. ⑤

[정답 해설]

⑤ 정상 비율을 유지하는 기존 설정은 '이동 속도(V) × 노출 시간(T) = 지상 표본 거리(10cm)'다. 고도를 높여 지상 표본 거리가 20cm로 커진다면, 기존 V와 T 상태에서는 이동 거리가 지상 표본 거리에 미치지 못해 오버 샘플링이 발생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정상 비율(20cm)로 맞추기 위해서는 드론의 속도를 0.5V로 감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2V로 증속하여 이동 거리를 늘려야 한다. 수식을 잘못 적용한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① 슬릿 너비를 좁혀 광량이 감소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출 시간을 늘려야 한다. ② 노출 시간을 2T로 늘리면 이동 거리가 지상 표본 거리를 초과하여 인접 데이터가 소실되는 언더 샘플링(축소 왜곡)이 발생한다. ③ 노출 시간을 2T로 유지할 때 정상 비율(10cm)을 맞추려면, 드론의 속도를 0.5V로 감소하여 이동 거리를 10cm로 일치시켜야 한다. ④ 속도를 2V로 높여 촬영할 때 정상 비율을 얻으려면 노출 시간을 0.5T로 줄여야 한다. 줄어든 노출 시간 속에서 신호 대 잡음비를 유지하려면 슬릿 너비를 넓혀 광량을 확보해야 한다.

[공통과목: 문학]

[18~21] 고전소설 - 김만중 「사씨남정기」

18. ⑤

[정답 해설]

⑤ 지문 마지막 부분에서 사씨는 유 한림의 추구에 "첩의 입으로는 변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으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한림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며 자신의 처분을 남편에게 체념한 채 맡기고 있다. 남편이 억울함이 없게 살피주기를 기원할 뿐, 스스로 참소하는 자를 찾아내 억울함을 밝혀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적극적인 태도는 작품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냉진은 유 한림에게 자신의 속내를 숨긴 채 옥지환에 얽힌 거짓 사연을 털어놓으며 유 한림의 호기심과 의심을 자극하고 있다. ② 유 한림은 냉진이 지닌 옥지환에 대한 사연을 들은 후, 속으로 집안의 중들이 훔쳐 내다가 팔아 버린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③ 유 한림은 서울로 돌아와 장모의 별세를 조상하고, 교씨와 두 아들을 만나며 그림던 회포를 풀다. ④ 사씨는 유 한림이 옥지환의 행방을 물어본 뒤 금상자를 가져와 확인하고 나서야 그것이 없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고 깜짝 놀란다.

19. ④

[정답 해설]

④ ㉠에서 냉진이 슬픈 모양을 꾸미는 것은, 옥지환에 얽힌 남녀 간의 은밀한 사연이 있음을 연기하여 유 한림에게 암시를 주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반면 ㉡에서 유 한림의 발언은 빈 상자를 확인한 후 상대(사씨)가 옥지환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음을 확인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행동이다.

[오답 해설]

① ㉠은 상대방의 반응을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신감에 책임을 묻고 따지는 행동이다. ② ㉠은 정보를 주기를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호기심을 갖고 묻기를 유도하는 행동이다. ③ ㉠은 정체 탄로를 염려하는 행동이 아니라 상대를 속이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다. ⑤ ㉠은 진실을 밝히려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허구적 사실을 진실로 꾸며내기 위한 악인의 기만적 행동이다.

20. ②

[정답 해설]

② ㉠(산동 지방의 주점)는 유 한림이 옥지환을 보고 의구심을 품게 되는 공간은 맞다. 하지만 이때 상대방인 냉진은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한 듯 입을 열었다", "거짓으로 슬픈 모양을 꾸미고" 등 기만적인 연기를 보여주었다. 상대방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은 유 한림이 암행이라는 공적 임무 수행 중 아내에 대한 사적인 근심을 얻게 되는 공간이다. ③ ㉡(친정)는 사씨가 유 한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공간으로, 이 단절된 시기가 유 한림의 의심이 커지는 배경이 되었다. ④ ㉢(집)는 사씨가 옥지환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당혹감을 표출하는 공간이며, 유 한림은 그 모습을 보고 의구심을 표출한다. ⑤ ㉣에서 유 한림은 고모를 불러 집안의 대변을 알리며, 개인적 의심이라는 내적 갈등을 외적 갈등으로 전환한다.

21. ⑤

[정답 해설]

⑤ 유 한림이 고모에게 집안에 대변이 생겼음을 상의하는 것은, 이미 자신이 본 물증(옥지환)과 악인이 주입한 허구적 서사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의논하는 행동이다. <보기>의 설명처럼 조작된 물증과 정황이 주는 압박에 의해 자신의 왜곡된 해석을 강화해버린 상태이므로, 그가 물증과 서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는 태도를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옥지환이라는 실재하는 물증에 '동심결'이라는 정표의 서사를 결합한 것은 타인의 판단을 교란하는 기만 전략의 예시다. ② '규문에 들어가는 것이 깊은 바다에 들어감과 같다'는 냉진의 탄식은, 옥지환에 여인과의 은밀한 사랑이라는 허구적 서사를 덧입히는 행동이다. ③ 유 한림이 처음 옥지환을 보고 도난 가능성을 생각한 것은, 물증은 확인했으나 악인이 의도한 서사를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④ 상자 속에 옥지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남에게 주고서 나한테 묻는 건 무슨 심사요?"라고 말한 것은, 조작된 정황의 압박으로 허구적 서사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2~26] 현대시 / 고전수필

22. ②

[정답 해설]

② 세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공통점이다. (가)는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정체된 자신을 응시하며 성찰한다. (나)는 가족과 집을 잃고 홀로 남겨진 부정적 상황을 계기로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을 되새기며 성찰한다. (다)는 가난하여 말을 빌려 타야 하는 상황을 계기로, 세상 권세와 소유 역시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응시하며 반성할 줄 모르는 인간의 태도를 성찰한다.

[오답 해설]

① 과거의 구체적 경험을 매개로 한 것은 (다)에는 해당하나 (가)와 (나)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③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가치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나)의 '갈매나무' 정도에 해당하며 세 작품의 보편적 공통점은 아니다. ④ 대조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주요 논지가 아니다. ⑤ 특정한 문장 중결 표현을 반복하여 의지를 단정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은 세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설명이 아니다.

23. ①

[정답 해설]

① (가)의 ㉠ '괴로움'은 화자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외부 자연(바람)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반석과 언덕 위에 멈춰 서 있는 자신의 소극적인 모습을 자각하고 여기서 비롯된 내면의 고통을 토

로하는 것이다. 피로움의 이유를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정서라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오답 해설]

② ⑥ '반석'은 계속해서 부는 바람과 대비되는 소재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화자의 부동성을 드러낸다. ③ ③ '썩김질'은 화자가 자신의 지난 슬픔과 어리석음을 되풀이해 곱씹으며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를 비유한다. ④ ④ '짜락'은 출고 외로운 방에 내리는 외부의 시련으로, 화자가 이에 굴하지 않고 '갈매나무'를 떠올리게 하는 배경이 된다. ⑤ ③ '사람의 마음'은 빌려 탄 말의 상태에 따라 쉽게 바뀌는 간사함을 보여주며, 내 것이라 착각하는 것에 대한 경계로 이어진다.

24. ②

[정답 해설]

② ① '북덕불'은 출고 쓸쓸한 방 안에서 화자가 손을 쥐며 최소한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대상이며, 이를 통해 글자를 쓰며 내면의 성찰로 들어가게 한다. ③ '갈매나무'는 매서운 눈보라를 맞고 서 있는 굳건한 나무로, 화자가 외부의 시련 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다잡게 하는 정신적 표상이다.

[오답 해설]

① ①은 궁핍을 확인하게 하는 절망적 요소가 아니라 성찰로 이끄는 작은 온기다. ③은 이상향을 상징한다기보다 주체적 의지를 상징한다. ③ ①은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직접적 매개라기보다 현재의 성찰 공간을 구성하며, ③은 미래를 낙관하게 하는 매개가 아니다. ④ ①이 화자를 무기력함에 침잠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⑤ ①이 현실을 운명으로 체념하게 만드는 대상이라는 설명은 시의 전개 방식과 반대된다.

25. ⑤

[정답 해설]

⑤ (다)의 글쓴이가 '어위고 둔한 말'을 탈 때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했다'고 서술한 적이 없다. 본문에 따르면 어위고 둔한 말일 때는 조심조심하여 오히려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고' 했으며,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느낀 것은 '귀가 날카로운 준마'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달렸을 때다. 작품의 내용을 잘못 파악한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① 빌린 것을 돌려주게 되면 임금도 외톨이가 된다는 통찰은, (나)의 화자가 느끼는 절대적인 고독의 상황과 맞닿는다. ② 빌린 것을 자기 소유로 착각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는, (나) 화자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며 반성하는 태도와 대비된다. ③ 만물이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인식은, (나)에서 화자가 아내와 집을 잃고 상실감에 빠진 상황의 이치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 ④ 준마를 타고 의기양양해지는 모습은, 거대한 운명 앞에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는 (나) 화자의 무력감과 대비된다.

26. ④

[정답 해설]

④ (가)에서 화자가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라고 진술한 것은 정체된 자신의 소극성을 객관화하여 자각한 결과적 인식이다. 이것 자체가 상황을 자각하게 만든 최초의 '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화자로 하여금 처지를 자각하게 만든 일차적 계기는 대비되는 대상인 '바람'이다.

[오답 해설]

① 바람(외부 상황)이 불 때 피로움(정서적 반응)을 느끼는 것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처지를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② 말을 빌려 타며 상태에 따라 심리 변화를 겪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매몰되어 진정한 이해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통찰한 것이다. ③ 빌린 것을 자기 소유로 착각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것은, 통념에 매몰되어 주어진 상황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자기 상실의 상태를 경계한 것이다. ⑤ 발이 언덕 위에 섰다고 자각하는 것이나 만물이 남의 것을 빌린 이치임을 깨닫는 것은 모두, 주어진 상황의 의미를 직면하는 주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27~30] 현대소설 - 서정인 「강」

27. ②

[정답 해설]

② 술에 취한 김 씨가 우연히 잘못 찾아 들어간 곳이 소년의 방

이었다. 본문에서 김 씨가 소년의 방에 자신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들어갔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잠바를 입은 사나이는 색안경을 낀 사람을 속으로 비웃고 못마땅해하다가, 그가 사라지자 마음이 풀렸다고 서술되어 있다. ③ 김 씨는 훈장을 달고 자랑하는 소년의 남루한 옷차림과 태도를 보며 속으로 뻔뻔스럽다고 여긴다. ④ 여자는 잠든 김 씨의 넥타이를 풀고 옷을 벗겨주며 속으로 '가엾어라'고 연민을 느낀다. ⑤ 여자는 방바닥에 널려 있는 옷들을 주섬주섬 벽에 걸고 남포 호야 속으로 입바람을 불어넣어 불을 켜다.

28. ⑤

[정답 해설]

⑤ [A] 단락은 표면적으로 눈앞의 소년이 어떻게 수재에서 열등생으로 변모해 갔지 미래를 가정하여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에 천재 소리를 들었으나 결국 평범한 열등생으로 전락해버린 김 씨 자신의 쓸쓸한 삶에 대한 자조적인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연민을 직접 드러낸 부분이 아니라, 인물의 내적 의식이 서술된 부분이다. ② 현재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희망적인 전망은 담겨 있지 않다. ③ 외부 대상의 묘사를 하다가 내면 심리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인물의 의식 속 가정과 상념을 서술하고 있다. ④ 대화 상황이 아니며, 인물 혼자 입을 다물고 몽롱한 가운데 떠오른 내적 독백이다.

29. ③

[정답 해설]

③ ③ '훈장'은 겉으로는 가난한 소년이 학업에서 거둔 성취를 보여주는 소재지만, 이를 들여다보는 김 씨에게는 천재였으나 초라하게 전락해버린 실재한 자신의 과거를 환기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오답 해설]

① ① '진눈깨비'는 들뜬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배경이 아니라, 도시민들의 쓸쓸하고 피로한 삶의 풍경을 시각화하는 배경이다. ② ③ 장님이 되는 상상은 타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단절되어 도피하고 싶은 자의식의 발현이다. ④ ④ 열등생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낙관적 신념이 아니라,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너져버린 회한을 비유한 것이다. ⑤ ⑤ 지워지는 발자국은 눈이 조용히 내리는 풍경의 묘사일 뿐, 과거의 상처를 잊고 김 씨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장치가 아니다.

30. ②

[정답 해설]

② 버스에서 색안경을 쓴 사람이 "이 차, 어디로 가나?"라고 묻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장면은 도시민 간의 단절과 소통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 색안경을 쓴 사람은 버스에서 잠시 등장했다 사라지는 단역일 뿐, 서사의 중심에 놓인 인물이 아니다. 이 소설의 중심인물은 여인숙에 묵게 되는 김 씨 등이다.

[오답 해설]

①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되 심리를 직접 서술하지 않는 것은, 독자가 거리를 두고 인물의 내면을 스스로 유추하게 하는 기법이다. ③ 백 원짜리 색안경 사치를 속으로 흉보며 자신의 천 원짜리 중고를 떠올리는 모습은 물질적 요소를 중시하는 도시민적 태도를 보여준다. ④ '열등생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 무너져 내린 지식인의 자의식과 회한을 대변한다. ⑤ 밖에서 소리 없이 눈이 쌓이는 풍경은 인물들의 삭막한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이들을 감싸는 연민과 위안의 시선을 형상화한다.

[31~34] 고전시가 복합

31. ③

[정답 해설]

③ (가)의 화자는 유배지로 떨어져 "옛그제는 부귀자요 오늘 아침 빈천자라"며 부유했던 과거와 비참한 현재의 처지를 대비하여 눈물짓고 있다. 반면 (다)의 화자는 과거에 노래를 지었던 사람

의 심정에 공감하며 자신의 시름을 풀고자 하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구체적인 지명을 나열하여 이동 경로를 보여주지만, (나)는 문살의 종류를 나열했을 뿐 지명과 이동 경로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설의적 표현은 활용되었으나, (가)는 비참한 처지에 대한 한탄이지 간절한 소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④ 불가능한 상황(가슴에 창 내기)을 가정한 것은 (나)에 해당하며, (다)는 노래를 불러보겠다는 현실적 행위다. ⑤ 대상의 역동성 표현은 시의 핵심적인 정서 표출 방식과 거리가 멀며, (나)와 (다)를 시각과 청각으로 이분화하여 역동성으로 연결하기 어렵다.

32. ④

[정답 해설]

④ ④ '빈 담뱃대'를 소일조로 지니고 나서는 모습은 가난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으려는 긍정적 태도가 아니다. 담배조차 없는 빈 담뱃대를 쥐고 나가는 것은, 체면을 버리지 못해 들고나선 몰락한 양반의 초라함과 비참함을 부각하는 소재다.

[오답 해설]

① ① 삼망을 통해 보리를 얻고자 하나 그것마저 믿을 수 없어 식구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② ③ 생계를 위해 낚시를 하려 하나 신체적 힘이 모자라 실행에 옮기기 어려워하는 무능함을 드러낸다. ③ ③ 부채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동냥하러 나가면서도 양반의 체면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장치로 화자의 부끄러움을 부각한다. ⑤ ⑤ 철없는 아이와 젊은 여인들마저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것은 낯선 타지에서 화자가 겪는 처절한 모멸감을 보여준다.

33. ②

[정답 해설]

② (나)의 ④ '창'은 답답한 마음을 툼내기 위해 화자가 상상 속에서 고안한 해소 장치다. 반면 (다)의 ⑥ '노래'는 겉으로 쌓인 시름을 조금이라도 풀어낼 수 있을까 하여 화자가 시도하려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오답 해설]

① ①은 외부와의 단절을 위해 설치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답답함을 풀기 위해 여닫으려는 수단이다. ③ ③ 창 자체가 답답함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라, 답답함을 없애기 위한 탈출구다. ④ ④를 통해 타인에게 숨기려는 것이 아니며, ⑥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타인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⑤ ⑤와 ⑥ 모두 현실 도피를 위해 의존하는 초월적 대상이라 보기에는 일상적인 행위 및 수단이다.

34. ⑤

[정답 해설]

⑤ (나)에서 가슴에 장도리로 '창'을 박아 넣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상을 통해 내면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를 가리켜 내면적 욕구를 현실에서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단정하는 것은 시적 상상력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 감상이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가 남의 다리 이듬에 빗대어 유배지를 걷는 자신의 다리를 '귀향다리 수종다리'라며 언어유희로 표현하는 것은, 비극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이겨내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구체적인 문살의 종류를 장황하게 열거하는 것은, 답답한 속을 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다)에서 '진실로 풀릴 거시면'이라며 가정하는 것은, 노래를 통해서라도 시름을 해소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욕구를 형상화한 것이다. ④ (가)에서 걸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다)에서 시름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지은 이의 심정에 공감하는 모습은 모두 부정적 현실에서 비롯된 비애를 드러낸다.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35. ①

[정답 해설]

① 발표자는 도입부와 본문에서 우주 쓰레기를 "총알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흉기", "시한폭탄" 등에 빗대고, 위성

충돌을 “전염병”이 퍼지는 것에 비유하는 등 감각적인 비유적 표현을 적극 활용하여 청중의 경각심을 환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특정 전문가의 인터뷰 발언을 직접 인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우주 쓰레기의 발생 원인을 역사적 변천 과정에 따라 다각도와 통시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다. ④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을 대립시켜 청중에게 비판적 판단을 맡기는 구조가 아니다. ⑤ 도입부에서 질문을 던지기는 했으나, 상호 작용을 통해 청중의 질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에 답변하는 방식 중심의 발표는 아니다.

36. ②

[정답 해설]

② 발표자는 [자료 ①]의 그래프를 활용하여 2007년과 2009년 부근에 그래프 기울기가 수직 상승하는 구간을 보여주며, 인공적 충돌 실험 같은 사건이 우주 쓰레기 개수를 폭증시켰음을 설명했다. 파편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지구 중력 영향을 덜 받아 궤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내용은 해당 그래프가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며, 발표 내용에서도 전혀 언급된 바 없다.

[오답 해설]

① ㉠의 연도별 물체 개수 그래프를 통해 특정 시점의 급증을 청중에게 묻고 확인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거쳤다. ③ ㉡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통해 하나의 충돌 파편이 다른 위성을 연쇄적으로 덮치며 파편을 만들어내는 ‘케슬러 증후군’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④ ㉢ 영상을 기반으로 이 연쇄 충돌이 방지될 경우 특정 궤도를 인류가 영원히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⑤ ㉣ 수거 위성(로봇 팔)의 개념도를 통해 해결 기술을 소개하면서도, 속도와 궤도의 불규칙성,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도입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했다.

37. ②

[정답 해설]

② <보기>에서 학생 2는 청소 위성의 기술에 흥미를 보이면서도, 발표자가 개발 비용을 막연히 ‘천문학적’이라고만 언급한 채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를 더 찾아봐야겠어”라며 주도적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학생 1은 영화 속 장면이 사실이었음을 깨닫고 두려움을 표할 뿐, 발표자가 제시한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③ 학생 3은 사후 수거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지적할 뿐, 이를 자신의 ‘진로’와 관련지어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④ 학생 1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연결지어 영향을 인식했으나, 학생 2는 기술적 한계에만 주목했을 뿐 자신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 짓지는 않았다. ⑤ 학생 2와 학생 3 모두 기술적, 제도적 보완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한 것이지, 해결 방안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여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38. ①

[정답 해설]

① (가)의 강연자는 서두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경험을 질문하며 화제에 대한 청중의 공감을 유도한다. (나)에서 학생들은 강연에서 다룬 ‘가변적 보상’ 개념을 공부에 적용하려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 2의 제안에 대해, 학생 3이 강연 내용을 근거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 1이 이를 수용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견해 차이를 조율해 나간다.

[오답 해설]

② (가)에서 권위 있는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명시적으로 인용한 부분은 없으며, (나) 역시 강연 정보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라 강연 논리를 수용하는 과정이다. ③ (나)에서 학생들이 (가)에서 언급된 비유적 표현 자체의 적절성을 평가하거나 토론하는 내용은 없다. ④ (나)의 학생들은 (가)의 분석 결과(스마트폰 중독 원인은 도파민)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⑤ (가)의 강연자가 청중의 예상되는 반론을 선제적으로 언급하며 주장을 강화하는 기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39. ③

[정답 해설]

③ 학생 1이 ㉠(도파민 분비 원리인 가변적 보상을 공부에 적용)을 제안하자, 학생 2는 제비뽑기 형식의 구체적 아이디어를 내며 동조한다. 그러나 학생 3이 강연 내용에 따르면 불확실한 보상(가변적 보상)은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중독을 유발하므로 오히려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다.

[오답 해설]

① 학생 1은 자신의 의견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학생 3의 지적을 수용하여 긍정적 형태(자기 주도적 루틴)로 의견을 수정 및 발전시켰다. ② 학생 1은 강연자의 주장을 반박할 의도가 없었으며, 배운 개념을 적용해 보려다 논리적 오류를 범한 것뿐이다. ④ 학생 1은 ㉠의 문제점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학생 3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타의에 의해 깨달았다. ⑤ 학생 3이 강연 내용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법을 설명해 준 것이지, 학생 1이 학생 3의 오개념을 바로잡아 준 것이 아니다.

40. ③

[정답 해설]

③ (나)의 대화에서 학생 2가 제안한 ‘랜덤 보상 스텀디’는 불확실성을 가중해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학생 3의 논리적 반박에 따라 수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기사 초고(다)의 첫 번째 해결 방안에는 목표 달성 시 좋아하는 간식이나 휴식을 주는 ‘예측 가능한’ 보상 사례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기각된 내용이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반영되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오답 해설]

① (다)의 2문단에서 기업들이 예측 불가능한 ‘가변적 보상’과 ‘주목 경제’의 논리를 이용해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분석했다. ② 학생 3이 제기한 위험성을 수용하여, (다) 3문단에서 “불확실한 보상은 중독을 부르지만 확실한 보상은 건강한 성취감을 준다”며 예측 가능한 보상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④ 학생 2가 제안한 학교 차원의 물리적 거리 두기 논의는, (다) 4문단의 ‘디지털 디톡스 존’ 조성 제안으로 구체화되었다. ⑤ (가) 강연에 제시된 ‘디지털 디톡스’ 개념은 대화 과정을 거쳐 (다) 기사의 물리적 환경 조성 방안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41. ③

[정답 해설]

③ 기사 초고(다)의 핵심 논지는 우리 뇌를 자극하는 ‘가변적 보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 설계와 환경 조성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궁극적 지향점을 함축적으로 잘 담아낸 ③번이 부제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사회적 해결책뿐만 아니라 개인적 해결책 역시 동등하게 강조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해결책만을 중심으로 다룬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묻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거창한 사회 비판적 논지는 기사의 핵심 내용이 아니다. ④ 디지털 디톡스가 언급되었으나, 뇌과학적 원인 분석의 핵심 키워드인 ‘도파민’이나 ‘가변적 보상’의 내용이 부족하다. ⑤ 학습 효율과의 상관관계를 과학적 데이터로 분석하는 학술 기사가 아니다.

42. ①

[정답 해설]

① (나)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학생 3은 독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극적인 말 대신 순화된 표현을 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작성된 기사 초고(다)의 제목에는 여전히 “해킹”, 본문에는 “도파민의 노예”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표현 순화 제안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짚어낸 ①번이 적절한 점진적 결과다.

[오답 해설]

② (다)의 4문단에 “잠시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라고 운영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누락되지 않았다. ③ (다)의 3문단에 “학습 플래너를 쓰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간식을 주거나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식이다”라며 구체적인 예시로 보강되어 있다. ④ (다)의 3문단에 “불확실한 보상은 중독을 부르지만 확실한 보상은 건강한 성취감을 준다”며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서술되어 있다. ⑤ 환경 조성 방안과 개인적 노력 방안이 병렬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분량을 늘려야 한다는 점진적 결과는 적절하지 않다.

43. ⑤

[정답 해설]

⑤ 작성된 초고에는 비유, 속담, 예상되는 반론 제기 등 다양한 글쓰기 전략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전문가(학자, 아동 심리 전문가 등)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의 실효성을 입증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3문단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여 주장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② 2문단에 문제 행동 교정의 기회를 차단하는 방식을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유추를 통해 부각했다. ③ 3문단 끝에 “아이를 환영하지 않는 높은 벽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며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④ 2문단 서두에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소란을 피워 불편을 겪은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라며 예상되는 반론을 수용한 뒤, “하지만 아이들은 미성숙한 존재이기에~”라며 논리적으로 재반박했다.

44. ①

[정답 해설]

① ㉠과 관련하여 학생 A는 “관용과 배려도 중요하지만, ”이라며 가치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현실에서 발생하는 ‘영업 방해로 인한 업주의 경제적 손실’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적절한 독자 반응 분석이다.

[오답 해설]

② 학생 C는 아동과 성인의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 주장하므로, ㉠의 관용 상실이라는 글쓴이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③ 학생 C의 반응은 조용히 휴식하고 싶은 권리를 강조한 것이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하는 논리가 아니다. ④ ㉡에 대해 아이들의 가정 교육 책임 문제를 지적한 학생은 없다. ⑤ 학생 B는 일부의 성공 사례를 전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지, 상호 배려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은 아니다.

45. ⑤

[정답 해설]

⑤ 글의 핵심 주제와 부합하지 않는 자료 활용 방안이다. 초고의 4문단에서 글쓴이는 금지(노키즈존)가 아닌 보살핌(케어 키즈존)을 통해 혐오와 배제가 아닌 모두의 공존 공간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그런데 노키즈존 찬성 여론이 높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추가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격리 및 배제를 낳게 되어 글쓴이가 타파하고자 한 사회적 단절의 문제를 강화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활용 방안이다.

[오답 해설]

① ㄱ-1 자료에서 노키즈존 확산 원인 1위가 ‘부모의 방임’이므로, 대안인 ‘케어 키즈 존’이 정착하려면 부모의 적극적인 책임이 선행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보강할 수 있다. ② ㄱ-2에서 노키즈존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도입부에 제시하면, 글쓴이의 주장이 대중적 인식과 괴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독자를 설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③ ㄴ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노키즈존이 단순히 현재의 차별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사회성 발달 저해라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을 2문단에 추가할 수 있다. ④ ㄷ의 법률(아동복지법)을 근거로, 노키즈존 운영이 단순한 영업 방침을 넘어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3문단에 추가할 수 있다.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35. ④

[정답 해설]

④ 지문의 1문단과 2문단을 살펴보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끝소리 ‘ㅂ’이 ‘ㅁ(순경음 비음)’으로 약화되어 교체되는 현상은, 앞선 어간의 끝음절 모음 종류(양성/음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매개 모음이 개입하거나 뒤따라 결합하는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자음이 모음 환경에 놓이면서 일어나는 규칙적인 음운 교체 현상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운뎃소리인 모음(‘·’ 또는 ‘-’)은 선행하는 어간 끝음절 모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따라 모음 조화를 이루며 결정되었다.

② 2문단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 뒤에 모음 어미가 오면 뒤따르는 어미의 첫 모음을 표기상 탈락시켰다고 설명한다. ③ 3문단에 의문형 선어말 어미 뒤에 결합하는 종결 어미는 문장 내 의문사의 유무라는 통사적 조건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선택되었다. ⑤ 3문단 끝에 세 가지 높임 선어말 어미가 모두 쓰일 때에는 '객체-주체-상대'의 순서로 고정되어 배열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36. ④

[정답 해설]

④ ㉔에 대한 분석이 문법적 규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어간 '니르-(모음)'에 객체 높임이 결합하면 첫소리가 받치음인 '-습-'이 선택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2문단에 따르면 객체 높임 바로 뒤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시-)가 결합할 때는 두 형태소 사이에 반드시 모음('·나·-'이) 의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개입한 모음으로 인해 객체 높임의 끝소리 '브'은 모음 환경을 만나게 되므로 '브'으로 약화 교체된다. 따라서 '브'이 유지된 '니르습시고'가 아니라 '니르스브시고'가 되는 것이 올바른 분석이다.

[오답 해설]

① ㉓ '뉘-(브)' 뒤에 '-습-'이 결합하고 뒤에 모음 어미 '-야'가 오므로, '브'이 약화되어 '뉘스브'가 된다. ② ㉕ '뉘-(스)' 뒤에 '-습-'이 결합하고, 모음 개입과 동시에 뒤 모음 어미의 영향으로 주체 높임이 '-샤-'로 교체되어 '뉘스브샤'가 된다. ③ ㉔ '흐-' 뒤에 주체 높임 '-샤-'가 오고 모음 어미 '-야'가 오면, 뒤따르던 어미의 첫 모음이 탈락하여 '흐샤'가 된다. ⑤ ㉖ 문장 안에 의문사 '뉘(누가)'가 존재하므로 설명 의문문에 해당하는 종결 어미 '-고'가 선택되어 결합한다.

37. ⑤

[정답 해설]

⑤ ㉓ '결합기[거탈끼]'는 앞말 '결'의 받침 'ㄷ(홀받침)'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을 겪은 후 뒤의 'ㅎ'과 만나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거나 단순히 연음되는 과정을 거치며, 겹받침을 해소하는 자음군 단순화는 '활'의 겹받침 'ㅍ'에서 'ㄷ'이 탈락하여 '르'만 남을 때 일어난다. ① '달뱃만[다뱃만]'은 '달'의 겹받침 'ㄹ'에서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탈락)를 겪는다. 두 단어 모두 겹받침에서 자음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자음군 단순화'를 겪었으므로 탈락의 종류가 동일하다. 음운 변동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고 명시한 ⑤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㉓ '꽃잎차[꾼닙차]'와 ㉕ '물약병[물락뽕]'은 모두 파생어 및 합성어 형성 과정에서 'ㄴ'이 새로 끼어드는 'ㄴ' 첨가가 동일하게 일어났다. ② ㉕ '물약병'은 [물낙뽕]에서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동화되는 유음화(교체)가 일어나 [물락뽕]이 된다. 반면 ㉓ '흙일꾼'은 [흙닐꾼]에서 'ㄱ'이 'ㄴ'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동화되는 비음화(교체)가 일어나 [흙닐꾼]이 된다. 둘 다 교체 현상이지만 그 종류(유음화, 비음화)가 서로 다르다. ③ ㉓ '흙일꾼[흙닐꾼]'의 '흙'에서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 ㉔ '값진일[값진닐]'의 '값'에서 'ㄷ'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동일하게 일어났다. ④ ㉔ '값진일[값진닐]'의 '진'이 [찐]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교체), ㉓ '결합기[거탈끼]'의 '기'가 [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나 그 종류가 서로 같다.

38. ③

[정답 해설]

③ ㉓ 문장 "누나는 자신이 직접 만든 요리를 식탁에 놓았다"에서 수식받는 체언은 '요리'다. 이 관형사절을 평서문으로 온전히 풀어보면 "자신이(누나가) 직접 (요리를) 만든다"가 된다. 즉, 안은문장의 목적어와 동일한 대상인 '요리'가 안긴문장 내부에서는 부사어가 아니라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다. 부사어 역할이라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㉓의 관형사절 "비가 오기를 기다리던 (농부들이)"에서는 주어인 농부들이 생략되었고, 명사절 "비가 오기를"은 생략된 성분이 없는 문장이다. ② ㉕의 안긴문장은 "(내가) (동생에게: 부사어) 예전에 사 준 (지갑을: 목적어)"이므로 안은문장 주어가 부사어로, 수식받는 체언이 목적어로 생략되었다. ④ ㉔의 안긴문장은 "(우리가: 주어) 어릴 적에 자주 놀던 (동네로: 부사어)"이므로 주어와 부사어가 각각 생략되었다. ⑤ ㉓의 안긴문장 부사절 "남들이 모르게"는 "(남들이) (그 일을: 목적어) 모르게"이므로 안은문장의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39. ③

[정답 해설]

③ 발화의 지시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지훈의 발화 "너 공원으로오는 올 때"에서 지훈이 향해야 할 이동의 도착지 ㉔은 약속 장소인 '시민공원'이다. 이어지는 대답에서 소연이 자전거로 가겠다고 한 ㉘ '거기' 역시 동일하게 최종 목적지인 '시민공원'을 대용하여 가리키는 지시어다. 따라서 두 지시어가 가리키는 장소는 동일하다.

[오답 해설]

① ㉓ "지금"은 발화 시점인 현재를 가리키며, ㉔ "아까"는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가리킨다. ② ㉕ "방금"과 ㉔ "이따가"가 가리키는 시간대는 특정 과거(㉓)가 아니라 발화 시점(현재)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④ ㉓ "마주 보고 오른쪽"과 ㉘ "등지고 왼쪽"은 관찰자의 180도 전환된 방향 기준에 따른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간상 동일한 벤치를 가리킨다. ⑤ ㉓ "어제"는 하루 전 과거의 시간이고, ㉘ "그때"는 그들이 예전에 벤치에서 만났던 특정 과거 시점이므로 반드시 동일한 때를 가리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

40. ④

[정답 해설]

④ (가) 방송 화면에서는 82%라는 설문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수용자의 경험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나)의 게시판 화면을 살펴보면 작성자와 최초 게시일 등 기본 정보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이 글이 수정되었다는 이력을 표시하여 정보가 갱신되었음을 나타내는 기능은 화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우측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시청자 반응을, (나)는 하단 댓글 창을 통해 본문에 대한 반응과 보완 정보를 공유한다. ② (가)는 하단 타임라인을 통해 원하는 내용을 선별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하고, (나)는 영상 클립 하이퍼링크와 첨부 파일로 정보 확인의 범위를 확장한다. ③ (가)는 시청자의 경험담을 계기로 '사전 선택'을 설명하고, (나)는 댓글을 통해 실천 방안(구독 해지)을 구체적으로 보완한다. ⑤ (가)는 화면을 분할하여 시각 자료와 대화창을 배치하고, (나)는 상단에 다른 게시판 목록을 제시하여 이동을 돕고 있다.

41. ⑤

[정답 해설]

⑤ [B] 대화창에서 '갈매기'는 "이 카드로 다음에도 결제가 아예 체크되어 있어서 당황했어요"라며 자신이 겪은 상황 자체만을 진술했을 뿐이다. 이 교묘한 수법이 바로 '사전 선택'이라는 고유한 다크 패턴이라고 학술적 명칭을 제시하며 알려준 것은 시청자인 갈매기가 아니라 전문가이다. 주체를 잘못 연결한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① [A]의 '조약돌'은 앱 삭제만 했다는 '모래알'에게 계정에 들어가 직접 구독 해지를 해야 한다는 실질적 조치를 안내해 준다. ② [A]의 '파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라는 향후의 제도적 변화 정보를 덧붙인다. ③ [B]의 '산호'는 우는 이모티콘 사례를 들며 배운 개념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지 질문한다. ④ [B]의 '소리'는 산호의 질문에 대해 그것이 감정적 부담을 주는 '반복 간섭'에 가깝다고 이유를 제시하며 답변한다.

42. ②

[정답 해설]

② 카드 뉴스 기획과 원문을 대조하는 문항이다. (나) 본문 2문단을 보면, 소비자가 만료일을 직접 캘린더에 ㉔ 적어두어야 하는 것은 "내년 법 개정 전까지는"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대처 방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의 필수 대처 방안으로 안내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잘못 파악한 오류다.

[오답 해설]

① 카드 1을 작성할 때, 방송 화면에 제시된 설문 결과(82%)를 활용하여 우리도 모르게 당하고 있다는 점을 시각화하면 경각심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③ 카드 3을 작성할 때, (나) 글쓴이가 겪은 탈퇴 방해 및 경고창 반복 팝업 사례와 부합하는 [자료 1]을 시각 자료로 배치할 수 있다. ④ 카드 4를 작성할 때, 댓글의 지수가 언급한 주의 사항을 환기하며 [자료 2]의 화면(기본 체크 항목)을 예시로 넣을 수 있다. ⑤ 카드 5를 작성할 때,

(나) 댓글에서 하늘이가 지적한 대로 앱 삭제에 그치지 않고 계정 설정에서 직접 구독 해지를 해야 함을 당부하며 마무리할 수 있다.

43. ③

[정답 해설]

③ ㉓의 "뽕뽕 숨겨두는"은 본동사 '숨기다'의 어간에 연결 어미 '-어'가 붙고, 뒤에 보조 동사 '두다'가 결합한 형태다. 여기서 보조 동사 '두다'는 앞선 동사의 행위가 끝난 뒤에도 그 결과로 야기된 상태(은폐)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문법적으로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가장 적절한 문법적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① ㉓ '당황하신'의 '당황하다'는 명사 '당황'에 접미사 '-하다'가 붙어 능동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피동 접사가 결합된 형태가 아니다. ② ㉕ '결제돼요'는 시스템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제되는 사태를 나타내므로, 행위의 주체를 명시하는 조사와 결합하여 원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④ ㉔ '적어두어야'의 '-어야'는 양보의 조건이 아니라, 뒤 절의 사태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반드시 ~해야)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다. ⑤ ㉓ '확인하는'이 수식하는 체언 '습관'은 "습관을 확인하다"라는 목적이 관계가 아니라, "확인하는 습관"이라는 동격 내지 관형의 수식 관계다. 의미상 목적어가 아니다.

44. ①

[정답 해설]

① (나) 게시물의 상단 제목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도전에 동참해요!"는 독자의 적극적 행동을 유도하는 청유형 표현과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 부호(느낌표)를 사용하여, 수용자들이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게시물의 목적을 직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해시태그는 본문 텍스트의 중간 흐름 속에 삽입된 것이 아니라, 하단에 별도로 배치되어 검색 및 분류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③ 투표란의 선택지는 "예"와 "당연하죠!"로 구성되어 사실상 찬성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유도할 뿐, 상반된 견해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④ 하이퍼링크는 텍스트 자체에 내장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학습회 프로필로 이동하여 클릭해야 하는 우회 경로다. ⑤ ㉓와 ㉕의 시각 자료는 스마트폰과 실천 방안의 이미지를 환기할 뿐,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메시지의 신뢰성을 높인 인포그래픽은 아니다.

45. ④

[정답 해설]

④ (나)의 학습회 게시물 하단에 배치된 ㉔ 텍스트는 사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탄소 배출량을 직접 계산해 보도록 돕기 위한 기능이다. (가)의 대화에서도 "자신의 배출량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를 사용자 간에 그 계산 결과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외부 사이트 접속 경로를 안내했다고 분석하는 것은 (가)의 내용과 (나)의 구현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 오답이다.

[오답 해설]

① 수현이 언급한 원인 문제를 환기하기 위해 ㉓에 "당신의 스마트폰이 지구를 뜨겁게 하고 있다?"라는 의문문으로 시선을 끈다. ② 수현이 지적한 문제와 지현이 제안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㉕의 일러스트와 형태로 시각화해 구현했다. ③ 지현의 제안을 수용하여 ㉓에 "도전에 동참하시겠습니까?"라는 투표 기능을 성공적으로 배치했다. ⑤ 지현이 특정 인물 지목(태그) 방식이 줄 부담감을 우려하자 이를 반영하여, 본문에서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고 ㉓(해시태그)를 삽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오답 해설]